

북한산 삼천리 골

아세아시멘트(주) 시멘트영업팀장 이 상 현

낙엽, 여기 있었노라 말하고자 함도 없이
비바람 눈보라 싫고 좋음 조차도 없이
파아란 하늘 닳아 푸르른 시절
호르르 불면 날아갈 갈색되어도
탁주 반기는 님 손바닥에
고이 내려 앉으니 나는 행복

소(沼), 4월 미풍에 파르르 떨리는 나의 온몸 물결을
깜짝 놀라 입 벌리고 흘린 눈빛으로 다가와
탁족하는 생물있어
한겨울의 정절은 깨어졌다 기쁜 호흡으로
다시 오라는 허심을 잠재운 채
지새워야 할 헤아릴 수 없는 기다림을

바위, 혼자 때론 여럿이서 쉬어가는 생명들
마주보며 담담지심 나누는 대소문 아래
음식 당신 사모바위 내 주위엔
들어 주어야 할 삶들과 버리고간 얘기들
해질녘 고해하면 저녁노을 손가락으로 쉬이
우리는 북한산 억만년 가시버시